

##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분석 :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김 윤 나\*\*

### 초 록

본 연구는 문화통합형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과정을 적응유연성 중심으로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문화통합형으로 분류된 46명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추적조사하여 12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문화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지·지지·영적·강인유연성이 탈북 이전 단계, 제3국 체류 단계, 국내 입국 정착단계에 걸쳐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지유연성은 북한에서의 고생스러운 생활과 죽음에 가까운 북한이탈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출현되며, 타국에서의 역경,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 등은 이러한 의지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상황적 조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한에 입국하게 큰 도움을 주는 지지자의 출현은 지지유연성을 나타내는 인과적 조건이며 이러한 지지자를 통해 영적유연성이 이 시기에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지 및 영적유연성은 다시 의지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매개적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며 부적 강인유연성은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사고를 강화시켜 지지유연성의 매개적 조건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국내 입국 정착 단계에서의 새로운 개입실천 및 지원방향이 요구되는 바이다.

주제어 : 북한이탈 청소년, 문화적응, 적응유연성, 현상학적 연구방법,  
콜라이찌(Colaizzi) 자료분석 방법

\*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강사

## I. 서 론

2007년 10월을 기점으로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만명을 넘어섰다(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8년 5월 29일자 검색). 이중 북한이탈 청소년(7세 이상~24세 이하)은 1,533명(2007년 1월 기준)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10-15%정도로 추정된다(통일부교육인적자원부, 2007).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연구는 통일 후 사회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적응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남한에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와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통일 후 국민들의 혼란 및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는 1998년 박선경의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관련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근거한 실천적 함의들이 도출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여전히 문제행동(조한범·이우영·이금순·전효관, 200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김현경, 2007; 홍창형, 2005; 전익수, 2001), 우울감(채정민·김종남, 2004; 채정민·한성열, 2003), 적응 스트레스(이소래, 1996; 채정민; 2003), 정신건강 및 치료(변미희, 2005; 이선윤, 2005; 최성숙, 2003; 서장혁, 2002)등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소래(1996)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단순히 이주의 문제가 아니라 적응과 변화, 수정, 조절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자신을 남한의 신념체계와 생활 방식, 사회적 관계망, 습관적 형태에 통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sup>1)</sup> 연령, 성별, 신체적 조건 및 건강상태, 종교, 경제생

1)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문화적응을 심리적응(이애란, 2003; 채정민, 2003) 혹은 사회적응(김봉화, 2002; 최종천, 2002; 김진미, 2003; 오난희, 2003; 서정미, 2004; 박윤숙, 2006)으로 나누어 고려하거나 심리·사회 문화적응(강구섭, 1998; 정효진, 2003; 도홍희, 2003; 박정선, 2004; 백혜정의, 2006)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응보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이소래, 1997; 윤영주, 2001; 최태일, 2001; 이인선, 2004; 노유선, 2004; 한희선, 2005; 김은진, 2005; 장연, 2005; Zhang Hexin, 2005; 김선화, 2005; 신민자, 2006; 김희숙, 2006)에 관한 연구들이 현재 더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의 범위를 ‘적응’, ‘심리적 적응’, ‘사회 적응’,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로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할 수준, 탈북시기 및 제3국 체류기간, 남한거주 기간, 가족, 친구, 사회적 지원자 등이다(김윤나, 2008).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과정상에서 어느 영역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되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은 자세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에 입국하기까지의 역경과 급격한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요인 및 상황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독특한 용어, 문화, 상징, 관계 등은 문화정체감으로 형성되어 나타나는 사회통합 과정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을 보다 민감하고 깊이있게(In-depths) 파악할 수 있는 심층면접에 기초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이 변화나 역경에 쉽게 적응하거나 회복하는 능력,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대처하는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개념이 바로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다. 적응유연성은 단일한 문제와 해결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을 둘러싼 관계망과 제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직관 및 암묵적 이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이 가진 적응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록 조력해주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을 보다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내적 긴장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적응기제는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관한 개입전략과 정책방향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용어의 정의

1) **북한이탈 청소년**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령범주를 10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처음 북한을 이탈했을 때 청소년 시기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제 3국에서의 체류하던 기간이 길어 남한에 입국했을 때 연령이 많은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남한사회 정규학교에 진학한 후 심각한 기초 학력부족이나 동료들과의 연령 차이 등으로 정규학교를 그만 두게 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수성,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범주인 9-24세의 법률적 개념, 최근 현대사회의 변화추이에 따른 청소년기의 연장 등을 반영한 것이다.

2) **적응유연성<sup>2)</sup>** : 외상(trauma)과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현재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려는 개인내적 특성, 대처양상, 환경적 요인이다. 개인내적 특성이란, 개인의 내적·성격적 특성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거나 혹은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말한다(김현아, 2006).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인 대처양상은, 개인이 환경적 요인(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등)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환경적 요인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사회적 환경으로서 개인의 역경에 대한 반응을 향상 시켜주는 그래서 더욱 유연하게 해주는 보호기제의 기능을 하는 요인을 말한다.

3) **의지 적응유연성** : 의지유연성은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맥이 없고

---

2) 적응유연성의 하위변인들은 관련 선행연구들에서의 공통적인 영역과 범주를 추출하여 총 8가지 영역의 33문항을 일차적으로 구성한 뒤,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문항들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받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전체 적응유연성의 신뢰도는  $\alpha = .846$ 으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의지유연성(4문항,  $\alpha = .795$ ), 영적유연성(4문항,  $\alpha = .862$ ), 강인유연성(3문항,  $\alpha = .796$ ), 지지유연성(5문항,  $\alpha = .747$ )로, 요인 내 문항들의 동질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기운이 빠질 때조차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지,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지,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지, 어려움이 많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것이라는 등의 강한 의지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 4) **영적 적응유연성** : 영적유연성은 힘든 상황에서 평소보다 더욱 기도를 한다던가, 역경에 처했을 때 신앙에 의지하는 편이던가, 종교를 통하여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던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나지 않을 때 나는 때때로 신이나 운명에 맡기는 것 등과 관련되어 있다.
- 5) **지지 적응유연성** : 지지유연성은 남한에서 따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의 여부, 힘들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힘들 때마다 나를 걱정해주며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할 절친한 남한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 6) **강인 적응유연성** : 강인유연성은 자신이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을 잘 다루는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꿋꿋이 딛고 일어서는 성격이라든지,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며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낙담하지 않고 힘든 것을 잘 참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면접대상자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는 문화통합형으로 분류된<sup>3)</sup> 북한이탈 청소년(10~29세) 12명<sup>4)</sup>이다. 면접을 실시한 기간은 2007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였으며 10대 청소년들의 경우는 약 30-40분, 20세 이상인 경우는 약 40분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으로는 모스와 필드(Mose and Field)의 면접 '동의과정'(신경림 역, 2007)을 사용<sup>5)</sup>하였다. 따라서 첫 면접시에 면접대상자에게 설문결과에 대한 설명과 연구의 목적, 과정 등을 설명하고 비밀보장 및 익명성, 면접에 동의하는 내용들에 대해 확인해 주었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연구과정에 대한 동의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고 면접내용을 녹음하였다.

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담당 실무자의 안내와 소개가 있는 후,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내용에 대한 녹음은 면접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으며 평균 1회 이상의 개별적 만남과 내용확인을 위한 전화작업을 실시하였다. 면접 후에는 바로 그 내용을 녹취록(transcript)으로 작성하였다. 녹취록 작성 후 다시 녹음내용을 듣고 빠진 내용이 없는지 재확인 하였고 작성과정에서 면접 대상자가 사용한 말투와 용어, 언어습관,

3) 본 연구자의 학위논문에서는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에 입각하여 먼저 북한이탈 청소년(10-29세) 193명을 양적조사 하였다.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은 기존 사회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가와 새로운 사회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두 가지 차원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을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화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를 토대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문화정체감이 모두 높은 통합형은 46명, 남한 문화정체감은 높고 북한 문화정체감은 낮은 동화형은 44명, 남한 문화정체감은 낮고 북한 문화정체감은 높은 분리형은 50명, 남북한 문화정체감이 모두 낮은 주변화형은 53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으로 의지,영적,지지유연성이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강인유연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4) 문화통합형으로 분류된 북한이탈 청소년 총 46명 중 추적조사가 가능한 북한이탈 청소년 28명을 1차 선택하였다. 28명의 코딩 넘버를 파악해보니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한 경우와 북한이탈 청소년의 눈덩이표집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진 경우, \*\*\*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해 설문을 실시했던 경우의 3가지였다. 각각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하였고, 담당 실무자의 곤란함, 면접에 대한 거부, 연락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12명을 심층면접하였다.

5) 모스와 필드의 '동의과정'은 인간의 권리와 보호를 강조하며 연구 참여자 모집과정, 연구에 대한 동의과정,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전 연구 과정, 연구 참여자 의뢰 등 매 순간마다 옹호하는 역할을 함께 함을 의미한다.

분위기 등도 최대한 그대로 옮기려 노력하였다. 면접 대상자 선정은 중복되지 않게 성별, 연령과 입국시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개괄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면접대상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괄적인 인적사항

번호	이름	연령(만)	성별	현 상태	남한 입국시기	면접일시
1	박**	25세	남	대학생 4학년	2001. 6	9. 27 11:30
2	장**	17세	여	중학생	2006. 6	10. 1 5시
3	주**	20세	남	직업능력학교	2007. 6	9. 29 2시
4	김**	24세	남	회사원	2007. 6	9. 30 12시
5	한**	25세	남	직업능력학교	2007. 6	9. 29 3시
6	고**	23세	남	대학생	2000. 11	9. 30 3시
7	한**	25세	여	대입 입시공부	2005. 8	10. 1 12시
8	김**	27세	여	대학생	2003년	10. 1 9:30
9	이**	16세	여	중학생	2006. 7	10. 2 5시
10	강**	25세	남	대학생 4학년	2001. 6	9. 28 5시
11	박**	25세	남	대학생 1학년	2005. 10	9. 29 7시
12	김**	15세	남	초등학생	2004. 10	10. 2 6시

### 3. 면접질문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맥락, 상황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Roberta R. Greene(2004)의 적응유연성 주제에 대해 성찰하는 면접내용에서 탐색된 질문<sup>6)</sup>들을 토대로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일차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시간

6) 이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건강과 안녕을 촉진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위협에서 빠져나가고 역경을 극복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비극적인 사건들이나 어려운 삶의 전환을 다루는가? 사람들이 재생하고 회복하는 능력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적인 사건에 대처하고 문제해결 전략과 해결책을 만들어내는가? 무엇이 성공적인 대처인가? 사회적 환경에서 인간행동의 어떤 측면이 생존과 성장에 기여하는가? 사건들이 한 개인의 적응 자원을 필요로 하거나 능가할 때,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가? 원조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움을 어떻게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가? 등이다.

적 흐름내용을 특성으로 하는 윤인진(2000)의 문화적응 과정 3단계(탈북 이전 단계, 제3국 체류단계, 국내입국 정착단계)를 고려하여 최종문항들을 구성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알아보기 위한 반구조화된 설문 의 영역과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내적 특성 관련

- (1) 탈북하거나 체류할 때, 어떻게 위협에서 빠져나가고 역경을 극복하였습니까?  
이것이 현재 남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 (2) 탈북하거나 체류할 때, 일어났던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해결 하셨습니까?  
이것이 현재 남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 (3) 탈북하거나 체류할 때 어떠한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까? 현재 남한에서의 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꿈과 목표가 남한 사회 적응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 2) 개인-환경간의 대처양상

- (1) 북한사회에 있을 때 또 탈북하거나 제3국에서 체류할 때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했었나요?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들이 당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러한 점들이 남한사회 문화적응 하는 데는 어떠한 도움이 되었습니까?
- (2) 탈북하거나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 남한사회에서의 적응할 때까지 종교가 당신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습니까?

### 3) 환경적 요인

- (1) 탈북하거나 체류할 때 누구의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현재 남한사회에서 어떠한 도움들을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도움들이 남한사회에서 생활해 가는데 있어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 4) 총체적 질문

- (1)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성공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 당신은 남한사회에서 잘 생활해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나요?
- (3) 북한에서 탈북 및 체류과정 그리고 남한에 오기까지 어떠한 점들이 현재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주요틀로 청소년이나 학력이 낮은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에 입국한지 오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더 쉽게 문항들을 재구성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기반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상황적 요건을 파악하였다. 현상학은 연구하는 목적이 경험의 본성, 의미,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주관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경험한 의미를 밝혀주고, 그 상황에 처한 맥락내에서의 인간 경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선입관이나 전제를 배제하기 위해 ‘괄호치기(bracketing)’<sup>7)</sup>를 실시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끌어내기 위해 질문의 범주를 넓혀 북한을 이탈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러 상황을 자연스럽게 얘기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반구조화된 면접 순서에 의해서만 질문이나 답변을 설명하지 않고 면접질문들을 먼저 숙고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콜라이찌(Colaizzi)식 방법<sup>8)</sup>을 사용하였다. 콜라이찌의 분석

7) 즉 연구자가 갖고 있는 경험의 의미를 면접대상자들이 밝힌 것들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면접대상자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벤매넨, 2000; 고미영, 2004 재인용). 그러므로 괄호치기는 개인의 믿음들이나 가정들이 자료 분석과정에서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신경림, 2001; 신경림 외 공역, 2007).

8) 콜라이찌식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Giorgi식 방법이나 van Kaam식 방법보다 더 본 연구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Giorgi식 방법은 Colaizzi 보다 직관적인 능력을 원하고 van

방법은 5단계에 걸쳐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Colaizzi, 1978). 먼저 제1단계에서는 면접대상자의 느낌을 얻기 위해 모든 대상자의 진술을 읽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험에 대해 최대한 동감하고자 면접했던 상황까지 상세히 녹취록을 풀고, 녹취록과 녹음내용을 반복해 확인해가면서 3-5번, 어떤 것은 7번까지 여러 번 읽었다. 제2단계에서는 면접대상자의 진술에서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의지·영적·지지유연성을 강화시키거나 강인유연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총 78개 추출하였다. 현상학에서는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흐름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진술문들을 표로 정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속에 포함된 문장들을 기술하였으며 의미있는 진술문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3단계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주제 묶음 또는 범주로 분류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녹취했던 자료와 구성된 의미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면서 13개의 하위범주를 만들고 이를 다시 5가지 주제범주로 조직하였다. 제4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해 최종적인 기술을 하였다. 제5단계에서는 최종 기술한 내용을 대상 면접자에게로 되돌아가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자는 문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번 읽고 최대한 경험적 사실에 가깝도록 표현의 서술과 정교함을 위해 노력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탈북 이전 단계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처음 북한사회에 있을 때부터 고생스러운 생활들과 죽음에 가

---

Kaam식 방법은 발생 빈도와 순위를 더 강조하고 있다. Colaizzi식 방법은 먼저 기술들을 읽기 → ‘의미있는 진술들’ 을 끌어내기 → 명확하게 밝힌 의미 등을 주제들의 무리들로 묶기 → 조사된 현상을 철저하게 기술하기 → 각각의 응답자가 제시한 철저한 기술의 유효성 확인하기 방법을 통해 현상학적 자료를 분석한다(신경림, 2001).

까운 북한이탈 과정, 남한에 입국 전까지 타국에서의 역경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역경들을 힘들게 극복해나가면서 의지유연성이 처음 나타나게 되고 점점 강화되어 간다.

### 1) 의지유연성 출현의 인과적 조건

- (1) 북한에서의 고생스러운 생활 : 북한은 96~7년을 기점으로 대식량난<sup>9)</sup>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하게 되며 처음부터 탈북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의해 떠밀려 탈출할 수 밖에 없던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 북한에서의 힘들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통해 어려움들을 극복할 의지들이 강화된다.

“...좀 괜찮았는데 식량을 안주니까 막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96,97년도가 제일 초절정이었어요. 그때는 아예 안취가지고 막 사람들이 굶어죽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고 3일까지 굶었거든요. 그러면서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중국에)다니다가 잡히기도 해서 쌀 빼앗기기도 하고 맨몸으로 집에 가기도 하고 5, 6월되니까 모심잖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구걸할 순 없다 이제 일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야겠다 중국돈으로 당일치기 해서 5원, 50원벌면 집에가 가지고 살리고...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강제송환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한 5번 넘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북한에서 감옥살이도 하고 한 한달정도 하다가 또 뛰쳐나오고 고생을 엄청했어요.”

“많은 식량난이 이어지다가 97년이 최악이었어요. 그때가 몇 백만명이 죽었어요. 그때가 어려워져서 저희도 나왔지요. 그때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중략).. 한 동안 산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전기도 안들어오고.. 사람사는게 먹고만 살다 뿐이지 환경이 즐길 수 있는게 없잖아요. 잠도 움막지어놓고

9) 이와 관련하여 1997년 당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북한은 식량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일원은 14일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3백여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원 관계자는 “북한은 작년 식량생산량은 평년작인 4백20만톤 수준보다 약 12% 감소된 3백69만톤으로 추정된다”며 “그 결과 북한의 식량사정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97년 1월 14일자 한국경제 신문 -김태완기자-

그냥 지는거예요.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환경이 불편하고 야생짐승소리 들으면서 도저히 못살겠다해서...”

이렇듯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집안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기 보다는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내 의지유연성이 강화되어 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2) 죽음에 가까운 북한이탈 과정 :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지며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두려움도 없애고 더욱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탈북시도를 두 번 하여서야 성공했어요...(중략).. 힘들었던 점은 5시간 밤길을 걸어서 부두까지 가는 것이 힘들었고 어머니를 남자인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걷기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배에 올라 탈 때 거리가 너무 넓고 배가 흔들거려 무서웠지만 ‘에따’ 모르겠다 하면서 이겨낸거 같아요(웃음..) 두려움과 무서움은 누구를 지켜야한다는 생각과 목숨을 걸은 일이기에 이겨낼 수밖에 없었고 탈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운명과 운이 있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올 때에는 3개국을 걸쳐 왔구, 국경 하나하나 넘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죽음을 각오한 그 상황에서는 두려운게 없었고, 국경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 2. 제3국 체류단계

### 1) 의지유연성의 강화되는 상황적 조건

- (1) 타국에서의 역경 : 죽음에 가까운 북한에서의 탈출과정 후에 대다수의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힘든 생활들을 경험한다. 타국에서 돈을 벌려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신변의 위협으로 인해 이곳저곳 주거지를 옮기면서 온갖 역경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이겨내어 훗날 남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적응하게 되는 것이다.

“98년 처음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변방의 한 농촌에서 8개월정도 농사일을 하고, 중국돈 20원을 받았어요. 계약은 한달에 100원씩 받기로 했으나, 8개월동안 일한 댓가로 20원을 받게 되자 농촌에서 일하는 대신 중국의 대도시로 이동해서, 그 후 선교사를 만났죠. 1년간 그 분과 같이 살았고, 1년동안은 북경, 상해, 할빈, 심양, 장춘 등 다른 대도시로의 방랑생활을 했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하루에 중국돈으로 5원, 한국돈으로 따지면 천원, 천원 쯤 못미치니까 700원정도, 하루에 700원정도 받고 일을 했었거든요. 봄부터 일을 해서 봄에는 모내기, 모심기,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 9시 열흘 일해가지고 50원정도 되어가지고 북한에 가면 한달정도 살수 있거든요, 그 래가지고 그런식으로 (중국에)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때마다 잡힐 것 같아가지고 주인집 창고에서 자고 그랬는데 창고에서 자도 되게 많이 행복했던 게 보름 벌여가지고 집에다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맘이 드니까 창고에서 자도 서글프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구요. 그런 생활을 한 한달동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 내가 94년부터 15, 16살부터..”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 중국, 제3국 등에서의 고생을 등지고 남한에 오기만 하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남한사회 역시 또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로서 북한사람들을 환영하기는 커녕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반응에 크게 상심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기존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의지유연성이 다시 출현한다.

- (2)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 :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한국으로 오게 되기 전 그동안 북한에서의 방송이나 중국에서의 남한에 대한 정보, 타국에서 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 고생 끝에 드디어 같은 말씨, 같은 민족이라는 남한에 대한 환상과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입국하게 된다.

“미안파 항공을 떠난 비행기가 태국을 거쳐 남한에 도착할 무렵에는 천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로가 막힐 정도로 많은 자가용승용차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선 대형건물들, 호화스럽게 장식된 상업건물들,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 등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천국에 온 듯한 감정이었어요.”

“그땐 한국에 대한 환상같은 것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있잖아요. 안 좋은 면은 없구 좋은 쪽만.. 중산층 아주 형편이 어려운 쪽이 아닌 상류층을 많이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때 한국은 사람 다 한명씩은 차가지고 있고 집도 으리으리하고 정말 잘먹고 잘사는구나 아무래도 환상같은 걸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 2) 지지유연성이 출현하는 인과적 조건 :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도움이 되는 지지자 출현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남한에 오기까지 중요한 인과적 조건으로, 한국에 입국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지지자를 들 수 있다. 이 때 지지유연성이 처음 형성되는데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지지자로 인해 남한에 입국하게 되고 추후에도 이 지지자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의미로 작용한다. 도움이 되는 지지자들은 목사나 선교사인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주로 북한사람의 인권 혹은 구제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지자는 추후에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주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된다.

“중국에서 3년동안 한국인 선교사의 보살핌속에서 3년간의 생활을 하고 2001년 여 기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오기까지는 선교사의 도움이 컸어요. 선교사가 한국으로 가자고 강력히 권해서요.”

“중국에 체류할 당시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이 컸어요... (중략)... 가장 중요한 안전과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해결을 해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방황하고 있던 나를, 불편한 몸으로 한국에 데리고 와 준 000삼촌과, 탈북자들을 위해 은행에서 2000만원을 빌려 소리 없이 도와준 000 삼촌도 감사드리죠.”

3) **영적유연성이 출현하는 인과적 조건** : ‘지지자를 통해 종교에 대한 정보획득’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입국에 도움이 되어주는 목사나 선교사들을 통해 종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이때 영적유연성이 처음 출현하게 된다. 이는 중국 또는 제3국에 종교를 가진 목회자들이 인권과 구호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선교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그 분의 도움으로 그렇게 중국집에서 도망을 쳐서 브로커 통해 캄보디아를 오게 됐어요. 캄보디아에서 5달정도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오는 정보랑 종교를 접하게 됐어요. 그때 한국사회란 어떤 것이구나 교회란 어떤 것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올라 고민했었을 때 솔직히 목사님 도움이 컸어요.”

“우리 새터민에게는 종교중에 기독교 역할을 많이 받지요. 탈북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 몸을 담그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중략).. 하지만 종교 (기독교) 그 사상은 눈 감고 살다가 첫 눈을 뜬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3. 국내입국 정착단계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하게 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이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적응과 부적응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이때 의지유연성이 발현되며 동시에 이를 강화시키는 매개적 조건으로 지지유연성과 영적유연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 1) 의지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매개적 조건

- (1) 좌절하게 되는 남한생활 :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친구들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하고 친구들로 인해 남한생활에 잘 적응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에서 남한에 오기까지의 경험들이 북한이탈 청소년 자신을 다지게 하기도 하고 강한 의지를 갖게 하여 남한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강한 의지를 다지기 전, 남한에서 어떻게 생활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인식하게 되며 다름을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이고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친구들은 여기 남한 친구들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사귀기 정말 힘들었어요. 사고방식이 틀려서요. 여기 같은 질문 딱 하나 놓고도 제가 보는 견해랑 개가 보는 견해가 틀려요. 자기주장도 강하구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진 않을까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자존심이죠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사람 시는게 다 똑같지요. 제가 또 장난이 심해요. 장난칠때 치고 또 진지할 때 진지하게 얘기 들어주면.. 제가 편하게 대하고 마 음주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마음이 돌아오니깐 제가 북쪽에서 왔다는 의식을 잘 안하지요”

“남한에 와서 공부는 둘째치더라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트레스, 커리큘럼 등 외래어를 몰랐고, 그렇다보니 학교친구들과 만나도 대화가 통할리 없었어요. 그땐 정말 죽고 싶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칠 수만 있다면 멀리 도망치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학공식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 모든 것이 나에겐 생소했고, 그렇다보니 수업시간에 설명하는 거의 대부분을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업시간동안은 정말 지루했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심심했어요.”

“처음엔 무시 많이하죠. 고등학교 들어와서 너 이것밖에 모르냐 중학교 너의 북한에서는 최고 지식이 이것밖에 아니냐 이런 말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북한에서 중학교밖에 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내가 너희들처럼 남한에서 다 배웠으면 너희들 만큼 아니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려

취라 알려주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생활을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성실성, 끈기, 강한 의지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에서 생활하거나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 혹은 타국에서의 역경을 겪으면서 습득하거나 강화되는 요소들이다.

- (2)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 터득 :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 일어나 학업에 있어 성실하고 꾸준히 임하고, 여러 어려움을 끈기있게 참아내면서 서서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시절부터 결석한번 없이 힘들어도 꼬박꼬박 등교했고..”

“일단 한국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이 맘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그들보다 월등히 잘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구요. 일단 말투고치기에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도 계속되는 생계 단과 혼자서 온 분들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또한 차가운 시선과, 정보에 대한 미숙함, 은근히 차별을 두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많이 고뇌하고 있어요.”

“노력은 그 누구나 현실에 살아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요. 나 또한 남한 사람 못지않게 새터민 못지않게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건 내가 어디에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물어 봐요. 나는 처음 그 질문이 정말 싫었어요. 13년을 북한에서 9년을 중국에서 2년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적응중인 내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물을 때 지금은 당당하게 나는 북한사람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나는 처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내가 당당해지기를 위해 노력”을 했어요. 당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채우고 배우고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탈북 친구들이 적응 못하는 이유는 우선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릇 속에 흙이 들어 있는데 밥을 담으려면 그 흙을 버려야 하지 않겠

어요. 당연히 그 그릇에 있는 흙이 대단하여 여권 없이 삼개 국을 날아다니며 여기에 온 것이 대단하지만 이 환경 속에서는 대단하고 단단한 흙이 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부드러운 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3) 구체적인 진로와 실천 계획 수립 :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에서 잘 적응해 가는데 있어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 후 실천에 옮김으로서 의지유연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을 때 더욱 가능하게 되므로 향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강화시키도록 하는 노력 및 서비스들이 더 요구됨을 확인해주고 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해요. 집에서 일정표를 매 일매일 딱 짜서 저녁까지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가게부도 딱딱 쓰고 해요.. (중략) 또 저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요. 중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죠.”

“좀 더 여기서만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보려면 역시 대학교는 가야겠다. (중략) 자격증 같은 것도 따야할 것 같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다보면 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앞날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참아 내는게.. 이 고비를 어떻게 하나 넘기고.. 사람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오늘 이 고비를 하나 참고 나면 북한에서 여태 그렇게 살아왔어요..”

- (4)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원

- ① 가족 :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족이란 존재는 고난을 감행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천이 되는 동시에, 북한에서의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남한사회에서 힘들때 이를 극복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가족들을 떠올리거나 생각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가족들 또한 북한이탈에 있어 중요한 존재로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주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특히 가족에 대한 부양감과 책임감이 강했으며 가족관계는 남한입국 초기에 많은 도움이 되어주었다.

“동생이랑 아버지가 있으니까 동생이랑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탈북하게 됐습니다. 중국이랑 왔다갔다 할 때 오직 한 가지 동생이랑 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중국에 와서 일하고 돈벌어다가 집에 가져다 주고 다시 나오고...”

“막 힘들때 되게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러지만 감옥에서도 어떨때는 잡혀가지고 내가 왜 살지 왜 이렇게 먹고 살아야겠다고 비등비등대지 그랬다가도 동생이랑 아버지랑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그게 나한테는 어렵고 힘든데서도 딛고 일어날 수 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땐 엄마가 젤로 보고 싶고 가족이 그리워요. 혼자서 슬프거나 맘 아픈 일을 당하면 집에 혼자 조용히 울면서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듯이 혼자 말해요. 엄마가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울고 나면 맘이 편하고 항상 가족이 지켜주는 것 같으니까요.”

- ② 믿어주고 지지해준 남한의 사회적 지지자들 : 남한에 가족이 없는 경우는 북한을 이탈하게 되거나 남한에 입국하게 되었을 때 도움이 되어준 지지자들이, 앞으로 남한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모델링이 되고 방향점이 되어 남한생활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자들은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 하나원 관계자, 자원봉사 선생님, 친구 등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지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살아가는 방향 및 가치관 설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제가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서 잘할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처럼 본보기가 되어야겠구나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면 나 저 사람 닮고 싶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00000운영위원장 하는 그 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조연도 많이 해주고 남한 분들 많이 소개시켜주셨거든요. 그 분이 알고 있던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주고 나의 마음을 많이 움직여주고 대학을 간다던가 심지어 학업 레포트 쓰는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중략).. 그니까 음 내 것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많이 도와줘라 라고 많이 말해주고 그 분이 소개시켜주신 분도 목사님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기도 그런 분들도 만나면 비전을 가르쳐주고.. 아무래도 남한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와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나를 믿고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 (5) 종교를 통한 정신적 위안 :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의지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매개적 조건으로 지지유연성과 함께 영적유연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종교를 통한 정신적 위안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좌절했을 때 참고 견디어 내도록 도와주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지금은 교회 목사님같은 분들에게서 많이 위로를 받아요.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선량함을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무시를 많이 하잖아요...(중략)...종교는 내가 참을성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종교를 안믿었을때는.. 무시를 당할 때는 참지를 못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너보다 잘 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종교를 통해 참지~ 내가 빨리 배워 취득을 하고 똑같은 걸 반복을 안해도 되구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에 나오면 적응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네 집에 들어갔었어요. 그 사람도 술도 안하고 담배도 안하고 되게 착한 사람인데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착하구나 하고 거기서 좀 느꼈는데”

## 2) 지지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매개적 조건

- (1) 북에서 왔다는 신분을 밝힘 :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게 된다. 그러나 곧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에 살았으면 다 아는 사실을 혼자 모르고 있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가 무너져 더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북한에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게 되는 것이 더 불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게 된다. 그러면서 남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관계를 맺게 되면서 더욱 쉽게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맨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고 막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물어봐야 하는데.. 처음에 저도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안 밝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물어도 못보고 무시도 받고 해서.. 학원을 그만두면서 깨닫게 된 게 아 제가 처음부터 알리고 들어가자였어요.”

“남한 친구들한테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얘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지요. 그러다보면 친해지고 나 북에서 왔다고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 멀어지거나 안 대해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나는 북한사람이라는 것에 당당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의 뜻은 나의 모든 선입견이나 불평을 벗어나 북한사람이라는 명칭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또 남보다 다르고 특이한 신분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잘해요(웃음.. 멋쩍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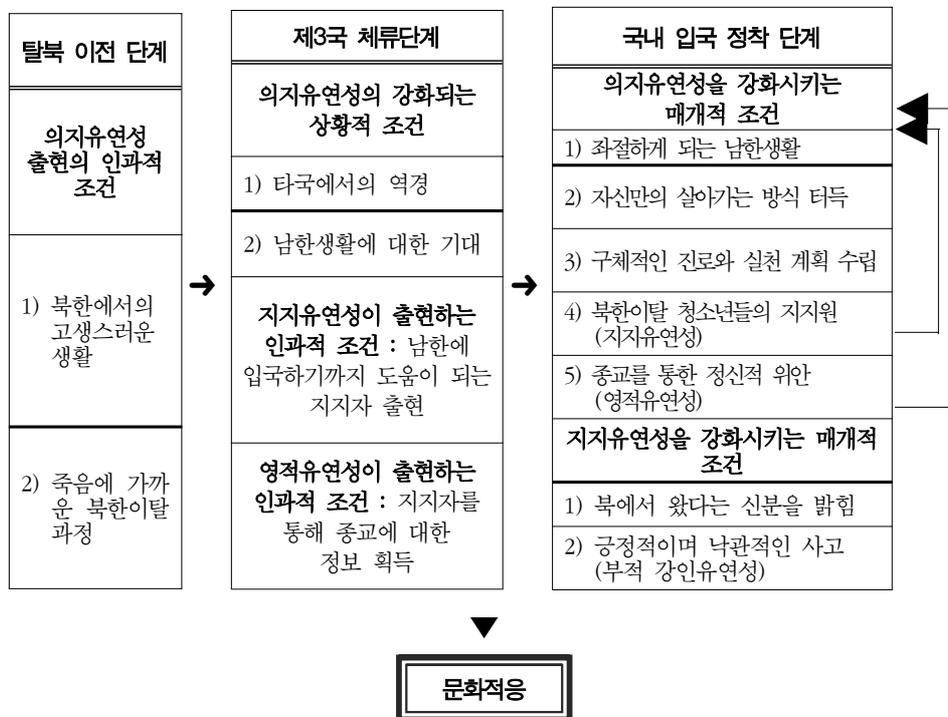
“...13년을 북한에서 9년을 중국에서 2년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적응중인 내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물을 때 지금은 당당하게 나는 북한사람이라고 해요..”

- (2)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사고 :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빨리 문화적응 하게 된다. 이러한 성향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적응해 갈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며 문화통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인유연성과도 관련이 깊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솔직하게 자기감정을 표현하며 자기주장을 강하게 표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남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 부딪히게 되기 쉽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중간에 그만두자’, ‘기분 나쁘니까 포기하자’라고 하는 경우로 빠지기 쉬운데 이를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큰 미래를 위해 잠시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본인이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있어 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저는 상대방을 보면 사람을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좋은 면만 많이 보는 편이에요.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에서 온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많아요. 남한에 오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놈들이 많다, 남한사람들은 다 똑같다, 그니까 한 사람을 잘못 보게 되면 좋은 사람도 나쁜 쪽으로 보게 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나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좋았던 것을 생각해요.”

“전 10번의 조중 국경을 넘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익사해도, 해당이 안되었고. 같은 감옥에 수감되었던 친구가 죽었어도 전 죽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사람에 비해 3년간의 고등학교 과정도 무사히 마쳤고 이젠 대학교 졸업도 바라보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힘들었어요. 아침이 밝아오면 태연하게 등교해서 웃으며 하루를 보내고 외로움과, 남한사람들의 이방인 취급도 싫었지만 난 지금까지 아무 탈없이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해 최종적인 기술을 하면 다음과 같다(콜라이찌의 자료분석 방법 4단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의지유연성은 탈북 이전 단계에서 북한에서의 고생스러운 생활, 죽음에 가까운 북한이탈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제3국 체류단계에서 타국에서의 역경,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로 의지유연성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때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도움이 되는 지지자를 만나 지지유연성이 출현하게 된다.



[그림 1] 적응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상황 및 맥락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단계에서는 기대와는 다른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자신들보다 어린 학생들과의 학교생활, 버거운 공부 등으로 남한생활 큰 좌절을 겪는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고생스러운 생활, 죽음에 가까운 북한이탈 과정, 타국에서의 역경 과정을 통해 획득된 성실성 및 끈기, 강한 의지와 같은 의지유연성으로 인해 남

한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을 나름대로 터득하게 되고 구체적인 진로와 실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지유연성은 가족, 학교 선생님, 종교적 지도자, 하나원 관계자, 자원봉사 선생님, 친구 등의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형성된 지지유연성으로 더욱더 강화된다. 또한 정신적 위안을 주는 종교의 도움으로 영적유연성을 강화시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본인이 북에서 왔다는 것을 당당히 밝혀 신뢰있는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사고를 통해 지지유연성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는 문화통합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강인유연성을 감소시키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과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문화적으로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문화통합 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면접대상자의 문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금 녹취록을 두 번 읽고 사실적 가치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는 서술과 표현의 정교함을 위해 노력하였다(콜라이찌의 자료분석 방법 5단계). 그런 다음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통합에 관한 최종적인 기술내용을 연구 참여자 6인에게 보여주고 본 내용과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았다. 2명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자에 대한 익명성을 요구하는 것 외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지 않아 최종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통합 과정에서 강화되는 의지유연성·지지유연성·영적유연성의 내용, 강인유연성의 특성들을 확증하였다.

## IV. 결 론

지금까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문화적응 과정에 관해 살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의지·지지·영적·강인유연성이 탈북이전 단계, 제3국 체류단계, 국내 입국 정착 단계에 걸쳐 형성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탈북이전 단계에서 의지유연성은 북한에서의 고생스러운 생활과 죽음에 가까운 탈북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출현되며, 제3국 체류단계에서 타국에서의 역경,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 등은 이러한 의지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상황적 조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한에 입국하게 큰 도움을 주는 지지자의 출현은 지지유연성을 나타내는 인과적 조건이며 이러한 지지자를 통해 영적유연성이 이 시기에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지 및 영적유연성은 다시 국내 입국 정착 단계에서 의지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매개적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며 부적인 강인유연성은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사고를 강화시켜 지지유연성의 매개적 조건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관한 실천적·정책적 차원에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지지체계의 확립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지원들은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좌절을 겪거나 힘든 시련을 겪을 때마다 정신적 위안이자 그들이 닦고 싶어하는 사회적 역할 모델이 되어 주었다. 이러한 지지체계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국내 입국 정착 단계에서 의지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지지유연성으로 작용하여 더욱더 문화적응을 잘 할 수 있게 조력해 준다. 따라서 지지체계의 발굴 및 연계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 및 종교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민간 및 종교단체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 민간 및 종교단체의 관계자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지지원이 되거나 종교를 통한 정신적 위안을 가져다 주는 영적유연성으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문화통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역할모델로서 중요하며 그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과 그에 따른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초기 정착 단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화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이다. 본 연구에서 자신만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 및 긍정적·낙관적인 사고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새로운 문화에 접하게 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대인관계, 갈등해결능력, 대처능력들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사례중심, 모의 학교생활, 역할극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실시된다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진로와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 체계의 확립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대학입시에서 본인의 진로나 적성, 경험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학과를 지원하기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어느 학과가 앞으로 전망

이 밝다고 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자신의 진로 발견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의지유연성을 강화시켜 문화적응 하는데 더 수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초·중·고·대학교의 각기 다른 특성에 맞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진로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차원에서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장기적인 실천계획의 수립이다. 급증해가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어떠한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통해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투자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책에 많은 점들을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처 실시하지 못했던 보다 다양한 방법의 다각검증(triangulation) 및 적응유연성 외의 다른 문화적응 요인 검증 등은 향후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 참 고 문 헌

- 고미영(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1호, pp. 71-102.
- 김윤나(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현경(2006).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trauma)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변미희(2005).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 대안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1호, pp. 127-150
-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7). <http://www.dongposarang.or.kr/>(검색일 : 2008. 5. 29).
- 서장혁(2002). 탈북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경림 역(2007). 인터뷰. S. Kvale(1998), Interview. 서울: 하나의학사.
- 신경림(2001). 현상학적 연구, 서울: 현문사
- 윤인진(2000).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 국내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3권 2호, pp. 123-184
- 이선윤(2005).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소래(1996).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익수(2002). 탈북청소년 초기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 조한범, 이우영, 이금순, 전효관(2003). 북한이탈 청소년 및 귀국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채정민(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채정민, 김종남(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8권 제1호, pp. 41-63

- 채정민, 한성열(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9권 제4호, pp. 793-814
- 최성숙(2003).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통일부교육인적자원부(2007). 새터민 현황 자료
- 홍장형(2005). 북한이탈 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3년 추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olazzi, P. E.(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existential phenome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berta R. Greene(2004). 양옥경·최소연·송인석·권지성·양후영·염태산 옮김. 사회 복지와 탄력성, 나눔의 집

## ABSTRACT

### A Study on the Resilience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terms of Their Acculturative Process in South Korea

Kim, Yoon-Na\*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the resilience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and its effect on their acculturation. The situational and contextual conditions that enhance the support, the will power, and spiritual resilience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as well as other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ir strong resilience were examined.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of how this resilience is created and developed, twelv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who were classified as cultural integrative types, were interviewed. All of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Colaizzi method.

As a result, the mental resilience of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was shown through the deadly process of their escapes from North Korea along with their painful lives before escaping North Korea. Their painful experiences of staying in a third country and the expectations of their lives in South Korea enhanced their mental resilience. At this time, they meet with supporters who helped them until they were able to safely enter South Korea and acquire support resilience. After arriving in South Korea and during their settling-in stage, they experience great setbacks due to the indifference of South Korean people, their school lives with younger classmates, and general academic difficulties acclimatizing to the new educational environment. They reveal the fact that they came from the North

---

\* Chung-Ang University

without any shame and form confid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einforcing their support resilience through a positive and optimistic process of thought.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Acculturation, Resilience, phenomenological approach, Colaizzi's data analysis method

투고일 : 6월 15일, 심사일 : 7월 24일, 심사완료일 : 8월 11일